

유아세례 문답 교육안

1. 유아세례의 근거

신약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모교단은 유아세례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아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파하여도 알아듣기 못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장로교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16:1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행2:38) 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요, 복음에 대해 반응한 사람의 결과는 세례로 나타납니다.

인류의 첫아담은 하나님의 명령(행위언약)을 어김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와 비참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 때문입니다.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확실한 근거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에게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을 받은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대요리문답 31, 32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믿게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순종하도록 하시고, 감사하도록 하시는 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자는 언약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1) 구약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행위와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큰 복으로써 자기 자신을 방패와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입증하는 표징인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할례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행해야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대대로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이 몸에 실천함으로써 은혜 언약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알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체결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도 이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바빙크는 이를 두고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리키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²⁾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하는 세례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가 아이들에게 시행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은혜가 더욱 풍성한 세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 모두에게 행한 일임으로 기억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유아세례의 가르침³⁾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가 할례가 아닌 세례를 받는 이유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할례처럼 단순히 육체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육체의 전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혜택을 지닌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2) 신약

1)“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자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추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17:7)

2)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 621

3)‘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2:11-12)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⁴⁾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말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베드로는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주셨던 약속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 때도 “너와 네 후손” 이었고, 오순절 때도 “너와 네 후손”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부류가 더 추가됩니다. “모든 먼 데 사람”인 이방인입니다.

즉, 오순절 때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은혜가 더해집니다. 이방인에 속한 이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베드로를 통해 주어진 오순절의 약속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자, 은혜 언약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참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3)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⁵⁾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유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구약에서는 할례로, 신약에서는 세례로서 언약의 표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과 의무’가 함께 합니다. 유아는 성장하면서 교회와 연합된 자로서 불신자와 구별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4)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2:39)

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4문

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부부 나눔 및 복습>

- ①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 ②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③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유아세례의 의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유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세례를 통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강조되지 못했거나 이 위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다고 해도,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의 일로 내버려두기 때문입니다. 유아세례식이라는 행사 자체로 끝이 아니라 입교에 이르는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와 교회가 함께 다양한 방편을 통하여 아이가 교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부모는 세상과 다른 종교로부터 분리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리와 경건함으로 기르겠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감당할 의무는 기쁨이 충만한 사랑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무에 있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붙어 있고, 신뢰하고, 깊이 사랑라는 것처럼 세례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1) 연합

첫 번째 사랑의 의무는 삼위 하나님께 붙어야 하는 연합입니다. ‘붙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는 속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요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듯이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는 크고 성장할수록 서서히 독립적으로 발달해져가고 점차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쯤되면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 쓸데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체성과 독립성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분리되는 것은 주님에게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곧 파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2) 신뢰

두 번째 의무는 신뢰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거둬 지키실 것을 보여주시고, 입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믿고, 인간을 믿고, 돈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표현하는 불신의 행동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⁶⁾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우리에게 끊임 없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무입니다. 이 의문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쁜 의무입니다.

3) 사랑

세 번째 의무는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은 위에서 살펴본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의무로써 잘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그 분이 주시는 온갖 유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생 중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의 반응을 합니다.

6)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를 소홀히 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디 한다면 사랑의 말은 거짓입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존경도 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요14:15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어진 의무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의 계명을 완전히, 철저하게 다 지켜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의 부족한 순종도 주님은 온전하게 받아주십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 나눔 및 복습>

- ①유아세례의 의무를 사랑의 의무로 느끼고 있습니까?
- ②하나님과 연합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 연합, 신뢰, 사랑이 있습니까?
- ③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 주기 위해 오늘 내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입교 전까지 보호와 양육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가 자발적인 회개와 신앙고백이 있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날을 상상하며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주어집니다. 동시에 언약의 부모는 언약의 자녀를 오직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유아세례식 때 하는 서약 내용에 근거하여 부모는 자녀를 책임있게 양육해야 합니다.

1)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 또한

타락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 할 때, 머뭇거릴 수 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타락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기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부모의 감정과 상관없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타락했기에 멸망의 자식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이 없으면 짓값을 받아야 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전통적으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경건회(=가정예배)입니다. 가정경건회는 언약 가정이라면 해야할 필수 사항입니다. 가정경건회를 통해 신앙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고, 아이들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⁷⁾

가정경건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은 ‘공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 공예배를 통해서 복음은 끊임 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 각종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의심할 때는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 하거나 보여주 기식 경건은 위험합니다.

가정이 위기를 만나면 함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좋은 것을 먹고 잘 자는 것,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등은 누가 강조 하지 않아도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죄로부터 떠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것,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암송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아 세례 서약은 이것을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가정경건회는 시간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7)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참조.

2)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도록 한다.

부모는 매일의 삶에서 자녀에게 ‘거룩한 진리의 도’를 교육해야 하고, 동시에 ‘주의 교훈 가운데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야 한다. 주의 교훈은 엡6:4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언약의 부모들은 교육의 책임자로서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교과과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교양으로 생활하는 것이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된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라는 지적, 윤리적, 종교적인 전쟁터로 내몰리는 현실은 정말 큰 위험요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아세례에서 입교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부모의 의무> 라는 설교를 통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양육에 관한 진지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멸절될 것이며, 하나님의 정죄함이 있다.”⁸⁾

루터는 부모들이 당대 사회 풍조에 휩쓸려 물질의 풍요를 가장 큰 가치로 추구하는 위험성을 폴로하면서 부모들이 신앙에 기초한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가져야 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세속적 풍요와 안락함을 따라 자녀의 장래를 지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교회와 국가에 꼭 필요한 지도자와 인재로 양성해야 하는 교육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자녀교육을 통해 세상과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일꾼을 양성하는 부모들의 힘과 영향력을 루터는 개혁 당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루터의 시대 보다 더 세속화되고, 더 개발화된 시대임을 기억한다면 부모의 의무를 감당할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4.마무리

8)루터선집 9권, 양금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p.336

세례교인은 자녀 나이가 만2세가 되기 전에 유아세례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⁹⁾ 그 이유는 유아들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신자 자녀의 유아세례는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신자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자녀가 세례를 받아 교회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고하여 승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여 교인으로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치리도 보호의 한 종류입니다).

유아세례가 진정으로 빛날 때는 아기가 성년이 되어 입교를 받아서 ‘성찬’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유아세례 때 인치신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때입니다. 그날을 상상해 봅시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 부모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지금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가 공적으로 신앙고백을 통해 입교하여 함께 성찬을 받는 날을 상상해봅시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와 교회 공동체의 서약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면 약속된 은혜가 분명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는 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삼위 하나님의 때에, 삼위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와 교회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유아세례 문답 시험 및 유아세례식 일정 안내>

5/5(주일): 유아세례 교육안 배부

5/12(주일, 오후2:00): 유아세례를 위한 문답 시험

5/17(주일): 유아세례식

9)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66문

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답: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 수 없습니다(행2:38; 8:26; 37). 다만 부모 두 사람 모두 또한 한 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의 유아들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창17:7,90; 갈3:9,14; 골2:11,12; 행2:38,39; 롬4:11,12; 고전7:14)